

조선시대 남자용 靴에 관한 연구

곽 경 희*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A Study on Man's Boots of the Joseon Dynasty

Kyung-Hee Kwak* · Na-Young H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7. 30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an's boots in the Joseon Dynasty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of the Ming and Qing Dynasty to find the influenti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Boots in the Joseon Dynasty are divided into several kinds such as *Heukgwejapihwa*(黑麂子皮靴), *Hheuksapihwa*(黑斜皮靴), *Heukpihwa*(黑皮靴), *Mokhwa*(木靴), *Hyeopgeumhwa*(挾金靴), *Suhwaja*(水靴子), *Jeonpihwa*(狹皮靴), *Gjahwa*(起子靴), and *Baekhwa*(白靴). In addition, *Jeong*(精: footwear) was put inside boots. They tend to be named according to their materials or ornaments on them.

First, *Jeong* put inside the boots is regarded as footwear for the comfort of the feet or protection against cold. *Mokhwa* appears in literature around the 19th century. As shown by remains and paintings of those days, it is considered to have become the common name of boots as it underwent many changes.

On the other hand, a book in the era of King *Gojong* includes pictures of *Suhwaja*. Compared to *Hukpihwa* in the same book. The topside seems to have been raised in order to make the wearer who put on a military uniform feel comfortable when walking, since the bottom piece is hard. *Baekhwa* is worn not only with funeral garments but also with *Sibok*(時服), one of official uniforms.

Boots in the Joseon Dynasty had been made following the design of the Ming Dynasty since official uniforms were conferred upon King *Gongmin* in the late Koryo Dynasty. But turning the late Joseon Dynasty its detailed design changed little by little. The topside of the boots became more round, the entrance part became wider, height of the shoes became taller, and the bottom piece became parallel to the ground.

Key words: Joseon(조선), Boots(화), Pihwa(피화), Jeong(정), Mokhwa(목화)

I. 서론

신은 복식 一囊을 완성하면서 의복 못지않게 착용자의 신분과 성격 등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지닌다. 지금까지 신은 한국 복식사 연구에서 의복과는 달리 부차적인 장신구 정도로 취급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 연구는 주로 다른 시기보다 문헌과 유물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사용자와 소재를 다루는 등 대체로 포괄적인 범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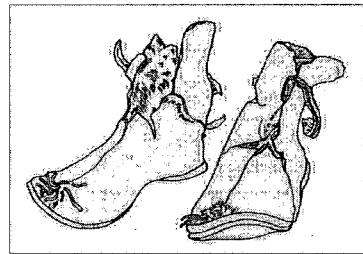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범위를 한정하여 조선시대 남자들이 신었던 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조선시대의 靴의 형성 과정을 알기 위해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靴와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아 조선의 靴의 독자적인 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조선시대 이전의 靴

우리 민족은 북방 유목 민족과 청동기 시대에 이미 토착사회를 구축하고 있었던 남방 농경민족의 융합으로 성립되었다¹⁾. 이러한 민족 구성과 같이 고대 우리 민족의 신에서도 남방계와 북방계 민족의 영향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布帛이나 풀로 만든 신목이 짧은 履는 남방 농경민족의 것인데 비하여 신목이 길어 방습, 방한에 좋고 몸에 밀착되어 행동하기에 편한 靴는 북방의 유목, 기마 민족이 많이 착용하였다²⁾.

靴는 원래 胡族의 신에서 유래했다. 『說文』 革部에 “胡人の 신은 정강이까지 이르며 絡鞮라고 한다³⁾.”고 했다. 일반적으로 무두질한 가죽으로 만들어 길이가 정강이까지여서 낙제라 불리었다. 가장 오래된 유물은 기원전 10세기경의 新疆 樓蘭羅布泊 古墓에서 출토된 것(그림 1)으로, 소가족제에 신목은 정강이까지 올라온다. 위에 트임을 내어 신기 편하게 하였고 착용한 후에 작은 가죽으로 묶었다⁴⁾. 전국시대가 되면서 漢族들도 낙제를 즐겨 신게 되었는데, 이를 靴라고 불렀다⁵⁾. 『釋名』과 『中華古今注』 등 여러 문헌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趙 武靈王

(기원전 326~299)이 한족 최초로 胡服과 靴를 군복용으로 들여왔다고 한다. 『中華古今注』에는 靴의 원류를 西胡라고 했는데, 이는 서쪽의 스키타이계 통일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靴를 착용한 예로 스키타이의 차스티에 3호분에서 출토된 기원전 4세기의 의례용 용기에 조각된 스키타이인이 신은 반장화(그림 2)가 있다. 무두질한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신목을 잡아매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민족 형성순서에 따라 먼저 정착했던 남방 농경민족인 토착민이 신었던 履에 우리민족의 고유 복제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는 스키타이계 북방민족⁶⁾의 靴도 유입되어 함께 착용되었다.



〈그림 1〉 新疆 樓蘭羅布泊 古墓출토 낙제 (중국복식명물고, 2001)



〈그림 2〉 스키타이인의 靴 (스키타이 황금, 1991)

고조선의 경우 瀋陽 鄭家陵子 6152무덤과 누상무덤에서 피장자의 다리가 위치했던 부분에 수많은 청동단추가 널려있는 것으로 보아 피장자는 청동단추를 여러 줄 단 긴 가죽 장화를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고구려의 기록을 살펴보면 『舊唐書』 音樂志에 赤皮靴, 烏皮靴가 있으며, 『三國史記』에 樂工人의 복

식으로 赤皮鞞, 烏皮鞞가 있다. 통넓은 바지에 赤皮鞞를 신고 있다고 하였다⁸⁾. 이들 기록을 통해서 대체로 가죽으로 만든 靴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추운 지역인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동북지방에 그 세력권을 두었으므로 가죽제품을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三國史記』의 기록⁹⁾과 벽화로 남겨진 수렵도에서 큰 규모의 집단적 사냥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짐짐승을 길렀다¹⁰⁾는 기록도 있어 멧돼지와 사슴, 호랑이, 곰, 노루, 담비, 수달 등과 같은 풍부한 동물자원들이 충분히 복식 재료로 이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분 벽화에서 나타나는 靴의 형태는 무릎까지 오는 군화, 몸에 밀착되는 목이 짧은 靴, 기마 시 착용한 신고가 낮과 같이 靴족한 靴가 있다. 帶가 있는 靴는 귀족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몸에 밀착되는 靴는 발목정도 길이로 약수리 고분 벽화에 문지기(그림 3)와 무용총의 시녀들(그림 4), 무용수들

이 신고 있다. 발등 중심에 재봉선이 보이며, 발목 부분과 발끝부분은 주름이 진듯하다. 이들은 대체로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므로 무두질한 얇은 가죽이나 형질같이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靴를 신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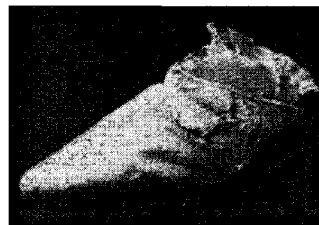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전술한 『三國史記』에 악공인의 모습을 묘사한 데서 춤추는 자의 신인 烏皮鞞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鞞는 靴와 동의어로 통용되고 있는데¹¹⁾, 『中華古今注』에는 “鞞는 옛 西胡制로써 趙 武靈王이 상복으로 삼았다. 그 鞞가 짧은 黃皮鞞는 한겨 시에 착용했다. 馬周가 말을 탈 때에는 鞞를 길게 해서 氈과 條를 달아 승마에 편리하게 하였다¹²⁾.”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박선희(2002)는 원래 호족의 신은 靴와는 모습이 다른, 정강이까지 오는 짧은 길이의 鞞라고 하였다¹³⁾. 이러한 논지는 옛 서호 지역의 출토 유물과 함께 생각해 보면 타당성이 있다. 기원전 9세기에 속하는 新疆 札洪魯克 고분에서 출토된 가죽제 신고와 漢代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그림 5>의 樓蘭 孤台墓地 출토 신이 있는데, 모두 요가 높지 않은 鞞이다. 또한 漢代에서 晉代의 1~5세기 유물로 추정되는 <그림 6>의 民豐縣 尼雅 1호묘지에서 출토



<그림 3> 약수리 고분 문지기
(高句麗古墳壁畫, 1986)



<그림 4> 무용총 시녀
(高句麗古墳壁畫, 1986)



<그림 5> 樓蘭 孤台墓地 출토 가죽제 신
(한국 고대 복식, 2002)



<그림 6> 草花文綴織靴
(シルクロード 絹と黄金の道,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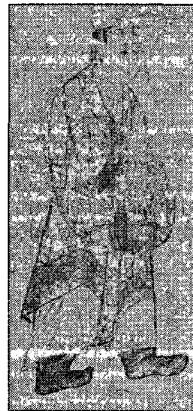
된 것도 소재가 가죽과 모로 되어 있으며 상태가 매우 좋다. <그림 3>의 문지기가 착용한 靴의 신목 처리를 이 신처럼 재단하고 뒤쪽에 트임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高春明이 낙제라고 하는 신과도 비슷하다. 이에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 무용수의 신인 烏皮鞞도 鞞와 같은 범주에 속하며, 벽화의 무용수의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백제의 靴에 대한 자료는 「梁職貢圖」¹⁴⁾의 宋熙寧 10년(1077) 模本인 <그림 7>의 「百濟國使圖」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梁職貢圖」는 梁武帝의 일곱 번째 아들인 蕭繹이 荊州刺使로 재임 중(526-539)이던 大同 5년(539)을 전후한 시기에 외국 사절을 그린 것으로 6세기 전반기 중국인에게 인식된 모습을 그렸으리라 판단된다¹⁵⁾. 여기에서 백제국사는 신코가 뾰족한 주름진 黑靴을 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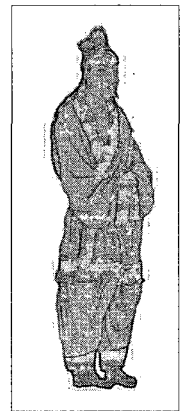
신라의 靴에 관한 기록 중 『三國史記』紫皮靴, 烏縹縹文紫皮靴¹⁶⁾, 烏皮靴¹⁷⁾ 등이 있다. 착용한 모습은 「梁職貢圖」의 模本으로 인정되는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의 사신도에서 볼 수 있다¹⁸⁾. 6세기 전반 중국에 입조한 신라사신의 기록¹⁹⁾이 있는데, 「梁職貢圖」가 그려진 6세기 전반기와 시기가 일치하므로 위의 두 그림의 관모를 쓰고 襦袴를 착용한 사람은 당시의 신라 사절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²⁰⁾. <그림 8>의 「王會圖」의 사신은 袴를 밖에 낸 상태에서 검은 靴을 신고 있고, 「蕃客入朝圖」의 사신도 靴을 신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행진을 하여 바지부리를 모았다. 신코는 둥글고 신목은 가려 있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또 흥덕왕 9년(834)에 제정한 복식금제에도 남자만 착용한 靴帶가 있는 靴에 관한 기록이 있다. 고급 제품으로 紫皮, 烏縹縹文紫皮를 사용하여 제작했으며, 靴帶로는 隱文白玉, 烏犀, 鍮, 鐵, 銅 등이 사용되었다. 평인들도 철과 동으로 된 화대 착용을 허용하고 있어 상하계급 모두 대가 있는 비슷한 모양의 靴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眞骨大等에게 자색을 금한 것 외에 색에 따른 계급의 구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 당에서는 靴가 정식으로 관복용 신으로 채용되었는데, 보통 검게 염색한 여섯 조각의 가죽을 이어 붙여 만들었고, 그 조각에 東, 西, 南, 北, 天, 之 六합의 의미를 부

여하여 六合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²¹⁾. 그런데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오피화는 금동 혁대 장식을 갖춘 帶가 있어 신을 때 발목을 졸라매게 되어 있다. 李如星은 만약 이것이 당시 수, 당의 靴制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면 육합화일 가능성이 있고 신라의 靴 또한 비슷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²⁾.



<그림 7> 「梁職貢圖」의 「百濟國使圖」(中國洛陽文物名品展, 1998)



<그림 8> 「王會圖」의 신라사신 (한국 고대복식, 2002)

발해의 靴를 볼 수 있는 자료로 8세기 중후반의 宮人의 모습을 보여주는 貞孝公主묘 벽화가 있으며 무사와 侍衛는 검은색의 靴을 신고 있다. 그리고 주름이 있는 선비족의 靴로 추정²³⁾되는 暗摸靴²⁴⁾라는 신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 동북 지방의 동부, 연해주, 한반도 북부의 추운 지방에 위치했던 발해에서도 고조선,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주로 가죽을 사용하여 신을 만들었을 것이다. 『新唐書』에 益州 成都 사람인 朱桃椎에 관한 부분 중에 신의 재료에 관한 기록이 있다. 朱桃椎는 隱者로 長史 竇軌가 그를 불러, 의복과 鹿幘과 麕鞞을 주고, 역지로 관청의 鄉正(鄉大夫)의 지위를 그에게 맡겼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²⁵⁾. 여기서 靸화는 사슴과에 속하는 순록 혹은 고라니의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서, 麕皮는 후에 조선시대 왕의 靴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고려 靴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현종 9년(1018)

長吏의 公服을 정하였는데 州, 府, 郡, 縣의 戶長은 모두 靴를 착용하고 州, 府, 郡, 縣의 史와 兵倉史, 諸壇史는 靴를 착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⁶⁾. 『高麗史節要』에 성종 원년(982) 백관으로 하여금 조정에 일을 아릴 때에는 靴와 絲鞋, 革履를 신을 것을 건의한 기록이 있다²⁷⁾. 또 忠惠王 5년(1344) 君臣慶會宴을 할 때 辛齋, 盧英瑞가 紫靴, 櫻帽를 착용하고 예를 하지 않자, 上洛君 金永暉이 전대의 사치스러운 관복을 고치지 않았다고 꾸짖는 기록도 있다²⁸⁾. 여기서 靴, 絲鞋, 革履는 공식에 착용하는 신임을 알 수 있고, 자색 靴의 금지에 관한 기록은 834년 흥덕왕 복식금제에서 진골대등의 靴의 재료로 紫皮를 금지하고 있는 기록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신라의 공복제도에서 1위에서 5위는 紫衣를 착용했고, 고려 광종대 백관의 四色公服制度에서도 紫丹緋綠의 순서로 최고 품위의 관직의 상징색으로 자색을 사용했으므로 계급 구분을 위해 자색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실물로 안동태사묘 전래품 중에 14세기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의 것과 형태가 거의 같은



〈그림 9〉 안동태사묘전래품 중 靴
(한국직물오천년, 2002)



〈그림 10〉 고려불화의 공양자
(高麗佛畵, 1981)

〈그림 9〉의 靴가 있다.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가운데 마포로 심을 대고 안에는 무명으로 안감을 대었다²⁹⁾.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불화의 공양자 한명이 무릎까지 오는 긴 靴를 신고 흘러내리지 않게 화대를 매고 있다.

Ⅲ. 조선시대 남자용 靴의 종류

靴는 삼국시대부터 관원용의 신이어서 조선시대에도 관리들이 신었다. 주로 재료에 따라 명칭을 붙였으며, 색상이나 쓰임새에 따라 붙이기도 하였다. 기본적인 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이 장식과 길이에 변화가 있었다.

1. 皮靴와 精

왕이 착용한 靴는 『六典條例』에 상의원 진상품으로 고라니 가죽으로 만든 黑麀子皮靴³⁰⁾에 白唐皮涼精을 갖춘 것과, 白羊毛精을 갖춘 것을 올린다³¹⁾는 기록에서 黑麀子皮靴였음을 알 수 있으며, 『尙方定例』에 의하면 黑斜皮靴³²⁾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斜皮에 대하여 정약용은 『雅言覺非』에서 “斜皮는 잘못 옮겨져서 黍皮가 되었다. 중국음으로는 본래 ‘서삐’인데 지금 鞋工이나 靴工이 잘못 청서피, 백서피라고 칭한다³³⁾.”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萬機要覽』에서도 白唐皮涼精을 갖춘 黑黍皮靴의 기록에서도³⁴⁾ 확인할 수 있어 흑사피화와 흑서피화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通文館志』에 戶曹에서 관례적으로 내려주는 의복과 노자 중 정사, 부사, 종사관, 당상관, 상통사에게는 黑黍皮靴子를 주었고 군관, 서기에게는 黑黍皮休靴子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³⁵⁾. 이 기록에 의하여 통신사 행렬도의 靴를 살펴보았다. 연대 미상의 행렬도 1점의 인물도에서 正使, 副使와 上上官, 上判事, 次上判事, 軍官이 신은 靴에 靴筒에 점무늬가 있는 것이 보였다. 다른 행렬도에서는 그러한 靴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그림 11〉의 부사의 靴에서 볼 수 있듯이 靴筒에 점무늬가 있는 黑黍皮靴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尙方定例』에는 靴의 부분별 재료가 기록되어

있다(표 1). 그 기록 중 특이한 점은 內拱(내목)에 사용하는 소재로 여자용 溫鞋類가 모두 白唐皮³⁶⁾인데 비하여 남자용은 白鹿皮를 사용하고 있었다³⁷⁾.



〈그림 11〉 부사의 흑서피화
(朝鮮通信使繪圖集成,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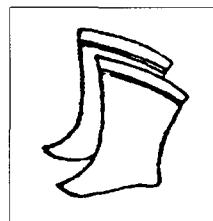
〈표 1〉 『尙方定例』에 기록된 왕의 靴의 종류와 재료

종류 부분	黑麂子皮靴	黑斜皮靴
表	黑麂子皮	黑斜皮
內拱	白鹿皮	白鹿皮
下粧	黑麂子皮	黑斜皮
衿	黑麂子皮	黑斜皮
回伊	黑麂子皮	黑斜皮
內昌, 外昌	-	-
그 외	縞布陸尺, 白絲貳錢, 魚膠貳兩, 鄉絲伍, 紛參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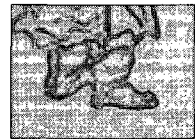
靴와 함께 나타나는 용어로 白唐皮涼精과 白羊毛精과 같은 精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짝을 지어 나온다. 중종대 23년에 白鹿皮挾金靴에 麂精을 갖추어 1部(결례)를 평안 병사에게 지급하라는 전교가 있었으며³⁸⁾ 성종조 10년 좌승지가 黑斜皮挾金靴에 麂精과 套鞋를 갖추어 明의 사신에게 임금의 선물을 가져갔으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사양하였다³⁹⁾란 기록이 있다. 그 외에도 왕이 사신들이나 관원들에게 靴와 함께 대부분 麂으로 만든 精을 사여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778년(정조 12)경에 柳義養(1718~?)의 『春官通考』에 甲精에 대한 기록과 그림(그림 12)이 있는데, 겹을 白紵紬로 만들고 안은 綠紵紬로 만든다고 하였다⁴⁰⁾. 전체적인 형태는 靴와 같으나 측면에서 봤을 때 질개선이 없고, 밑창 또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精과 관련된 기록으로 馬縞가 『中華古今注』에서 馬周가 당시 靴鞞를 개조하면서 麂과 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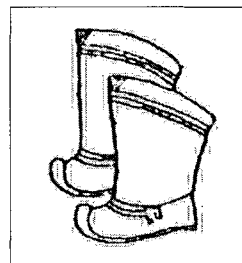
를 더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전은 靴 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毛氈으로 만들었으며 靴筒과 같은 형태로 되었으며 보온에 유리했다. 제작 시 보통 靴筒보다 한 截 정도 높았으며, 전과 靴筒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은 작은 칼, 문서 등의 작은 물건을 넣기에 좋았다⁴¹⁾. 明·清代의 황제의 유물에서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精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의 회화 자료로 〈그림 13〉의 김홍도(1745~?)의 「그림감상」에 靴 속에 精으로 추측되는 것을 착용한 사람이 있다. 흑색의 靴 위로 보이는 트임이 있는 부분이 緣인지 精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시기에 씌어진 〈그림 14〉의 『春官通考』의 靴의 그림을 보면 뒤에 트임이 없으므로 김홍도의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은 精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精은 靴 속에 신는 것으로 직물로만 만든 버전과는 달리 털이나 氈, 가죽으로도 만들어 딱딱한 靴를 신을 때 발의 편안함을 위해 착용한 足衣의 한가지로 생각된다. 한편 淸대 황제가 관리들에게 사여한 靴의 기록 중 『冠袍帶履庫總用』에 따르면 “嘉慶 12년 10월 18일 관리 9명에게 涼里와 皮里를 속에 덴 靑緞靴 14쌍을 지급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涼리는 여름과 가을용이고 皮리는 봄, 겨울용이었다⁴²⁾. 마



〈그림 12〉 甲精
(春官通考)



〈그림 13〉 精과 靴
(조선시대 풍속화, 2002)



〈그림 14〉 靴 (春官通考)

찬가지로 왕의 白唐皮 涼精은 여름용이고, 白羊毛精은 겨울용일 것이다.

<표 2> 『尙方定例』에 기록된 왕의 精 종류와 재료

종류 부분	白羊毛精	白唐皮 涼精
精	白羊毛	白唐皮
衿	草綠大雲紋匹緞 雲紋匹緞 ->세자궁	草綠大雲紋匹緞 雲紋匹緞 ->세자궁
內拱	白鼎絀陸尺	白苧布
訥非音	白絲貳錢	-
縫作	草綠絲伍分	白絲壹錢伍分
回粧	-	白狗皮
그 외	-	草綠絲參分

<표 2>와 같이 『尙方定例』에 그 종류와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별 재료가 있다. 왕의 정은 백양모와 백당피를 주재료로 하고 衿을 草綠大雲紋匹緞으로 하였다. 백양모정에만 訥非音이란 것이 있는데 이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로 백사 2전이 소요되므로 누비를 지칭하는 것이겠다.

흑피화는 백관의 公服과 常服에 착용한 신으로 검은 가죽으로 만든다. 그런데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 春明逸事에서 보면 “靴자가 순전히 皮物로 하던 것이 뒤에 氈으로 內粧하고 외부는 靑錦緞으로 둘러서 靴 밖에 보이게 하고 고급품은 錦緞으로 꾸몄으며, 근래의 新制로서 태조가 御製한 수화자의 모양과 같다⁴³⁾.”고 하고 있다. 李裕元이 철종, 고종대의 무신이었으니 당시의 흑피화의 변모를 알 수 있다⁴⁴⁾. 1493년에 편찬된 『樂學軌範』에도 흑피화는 흑피로 만든다고 하였다⁴⁵⁾.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 유물을 보면 布와 絨 등을 쓰기도 했으며 입구에는 붉은 襪장식을 두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木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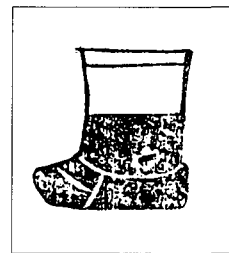
신올이 정강이까지 오는 비교적 짧은 靴를 말한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李震相(1818~1886)의 시문집인 『寒洲全書』에 그 도식과 설명이 나온다. <그림 15>의 목화는 가죽을 사용하고 두 겹 바닥은 鞋와 같은데, 혹은 나무 조각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위로 정강이의 반까지 싼다⁴⁶⁾고 했다. 바닥에 나무

를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 길이가 정강이 반이라고 하면 발목 바로 위까지의 높이이므로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純宗實錄』에는 고종 喪時 小, 大斂 衣襟에 木靴는 外供으로 鴉青貢緞, 內供으로 白貢緞, 가장자리[緞]는 紅貢緞으로 한다⁴⁷⁾고 되어 있어 그 소재와 색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최익현 상 (石芝 蔡龍臣, 2001)



<그림 16> 목화 (寒洲全書)



<그림 17> 조선 후기의 목화 (한국복식2천년, 1995)

이렇게 목화의 기록이 발견되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활동한 화가 채용신(1850~1941)이 그린 초상화를 <그림 17>에서 살펴보면 靴의 앞부분이 『寒洲全書』의 그림과 거의 비슷하다. 사실 현존하는 靴의 유물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목화들이다. 유물인 <그림 16>의 목화는 靴 입구에 襪을 들었고, 뒤에 트임이 있으며, 신바닥은 가죽으로, 신목 부분은 모직물로 만들어졌다. 바닥은 지면과 수평을 이루었다. 이러한 靴는 사진과 회화자료를 통해 조선조 말에 조복, 공복, 상복에 착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터 목화라는 명칭이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大典會通』이나 『大韓禮典』과 같은 국말의 법전에도 흑피화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목화는 조선 후기 靴 종류의 모양이 <그림 16>과 같이 변화되면서 靴의 통칭어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3. 水靴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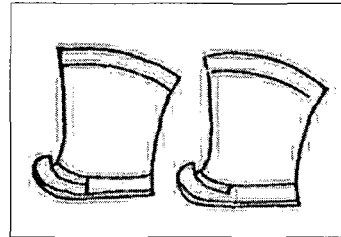
水靴子는 李肯翊(1736~1806)이 지은 野史叢書인 『練藜室記述』에 “영조2년 都承旨 鄭亨益이 아뢰기를 ‘무신이 흑철릭을 입고 수화자를 신는 것은 활쏘기에 편하고 견기에 좋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48).’”라고 하였다.

이렇듯 무관이 戰地나 陣營에 나갈 때는 戎服을 입고 수화자를 신었다. 원래는 비가 내릴 때 신었으나 그 후에 변용되었으며 甲冑를 착용하였을 때도 많이 신었다고 한다. 원래 수화자는 만들 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신바닥에 기름을 오랫동안 먹인 천이나 가죽 또는 종이를 깔고 만든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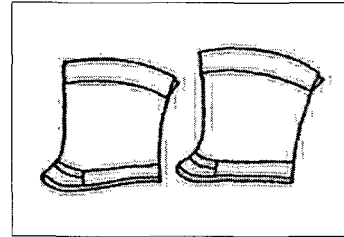
형태에 대한 기록으로 연행록 중의 하나인 『聞見雜記』에 淸人이 신은 수화자를 설명한 것 중에서 “위 아래가 모두 수화자를 신는데 그 아가리가 길고 좁아서 벗고 신기에 매우 곤란하나, 대개 행보에 편한 것을 취한 것이다. 신바닥은 천을 접어서 만들었는데, 극히 두껍고 단단하여 비록 진흙길을 걸어도 스며들어 젖지 않는다49).”는 것이 있다.

따라서 조선의 수화자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 그 형태에 있어서 일반 皮靴와는 조금 다르게 통이 좁아 활동에 편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

다. 고종대의 『進宴儀軌』에 수화자의 도식이 나오는데(그림 18), 그 형태는 당시 <그림 19>의 피화와 조금 다르다. 수화자의 앞부분이 피화보다 위로 더 들렸고 靴筒이 더 길다. 신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걷기 편하게 하기 위해 수화자의 앞부분을 위로 들리게 한 듯하다.



<그림 18> 고종대 『進宴儀軌』의 수화자 (한국삼재대회, 2002)



<그림 19> 고종대 『進宴儀軌』의 피화 (한국삼재대회, 2002)

4. 白靴

白靴는 흰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靴이며, 주로 國喪 때 관원의 喪服에 착용되었다. 백화가 사용된 예를 실록에서 찾아보면 태종 8년(1408)에 태조 昇遐 때 禮曹詳定喪制에 규정된 신의 제도에 문무백관, 駙馬, 內侍, 茶房 등에 백화를 신게 하였고50), 세종 28년(1446)의 王妃喪制에도 宗親, 부마, 문무백관, 각 도의 수령, 생원 등에게 백화를 착용하게 하였다51). 이 외에도 국상 때마다 착용된 기록이 자주 나오고 있다.

백화는 국상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산군대와 정조대에 그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 국상은 없었다52). 정조 2년에

朝臣이 백화를 신고 입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⁵³⁾, 정조 17년 10월에는 公服과 私服을 따지지 말고 일체 엄금하라는 내용이 있다⁵⁴⁾.

한편 같은 정조대에 관복 중 時服에는 백화를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종 때 이유원이 쓴 『林下筆記』에 “옛날에는 흑단령에는 흑화를 신었다. 時服에는 白靴를 신었는데 正廟朝에서는 흑화를 병용하였으니, 시복에 흰색으로 받치던 안감을 청색으로 하였기 때문이었다⁵⁵⁾.”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복이란 홍단령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되며⁵⁶⁾ 1735년(영조11년)의 조영복의 시복 담홍색 단령을 입은 모습을 그린 초상화에서 백화를 신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체로 후대로 갈수록 喪服 이외에 백화 착용을 금하는 추세를 보였다.

5. 狹皮靴

『老朴集覽』에서 “狹皮란 『質問』에 이르기를 ‘양 가죽에 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돌기가 있는 것으로는 신을 만들었더니 보기 좋았다’라고 하였다. 지금 狹字를 살펴보니 韻書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글자의 뜻을 알 수 없다⁵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狹皮靴는 무두질한 양가죽으로 만든 靴로 추정된다. 이 전피화가 漢語 학습서인 原刊 『老乞大』에서는 봄에 신는 신발로 나타난 반면, 이후의 『老乞大』 刊本에서는 여름에 신는 신발로 기록하였다⁵⁸⁾. 양가죽은 부드럽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어서⁵⁹⁾, 여러 계절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보면 세종대 31년 1월에 의정부에서 예조의 明文에 의거하여 禁制 조건을 아뢰었는데 狹皮靴 등은 流品朝士, 衣冠子弟와 成衆官 외는 엄하게 금지한다고 하여 고급품임을 알 수 있고, 동왕 11년 6월에는 명나라 사신 창성이 요구하는 물품 중에 皮靴가 있었다. 그 이후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6. 起子靴

실록에 세종대 11년 2월에 대소인원 및 공, 상인

의 기자화를 금지했으며, 예종 1년에 다시 대소인민의 기자화 착용을 금하였다. 성종조 10년 10월에 黑斜皮挾金起子靴와 11년 8월, 12년 5월, 8월에 白鹿皮挾金起子靴를 明의 사신에게 사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의하면 기자화는 주로 흑사피와 백록피를 주재료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으나, 정확히 어떤 장식을 가한 靴인지는 알 수 없다. 성종대 이후에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7. 挾金靴

挾金靴는 백관의 상복에 착용한 것인데 쇠를 끼운 靴라는 뜻으로 이것은 바닥에 특별히 징을 박은 것이 아닌가 한다⁶⁰⁾. 예종 1년 7월 당하관의 挾金靴를 금하라는 전교가 있었으므로 주로 당상관이 착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조 5년 3월 명나라 사신에게 白鹿皮夾金靴 2쌍을 주었고, 6년 3월 역시 白鹿皮夾金靴 1쌍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성종 10년 10월에도 黑斜皮挾金靴 靚精 套鞋具 1개를 주었다. 중종대는 다양한 사람에게 사여한 기록이 나온다. 12년 12월 大君, 諸君, 宗親, 駙馬와 종1품 이상에게 挾金靴를 하사했고, 23년 2일 평안 병사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白鹿皮挾金靴靚精 1部도 포함되었다. 이 기록들에 의하면 협금화도 백록피와 흑사피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IV. 조선시대 靴의 형태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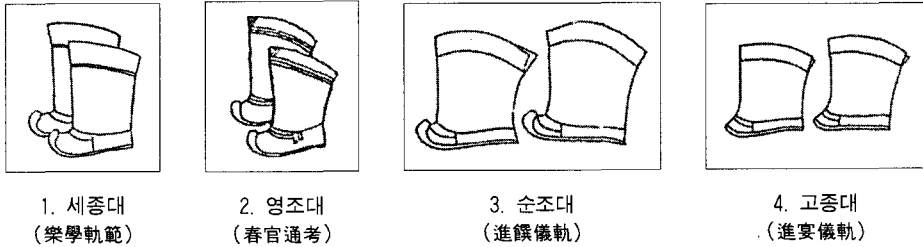
태종 3년(1394) 왕의 면복과 왕비의 관복을 사여 받은 것으로부터 공식적으로 明의 복제를 따르기 시작하여 그대로 습용해 대한제국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 착용하게 되었다⁶¹⁾. 백관의 관복도 태종 16년(1416)에 官服色을 설치한 뒤 그 첫 사업으로 明洪武 3년(공민왕 19년: 1370)에 사여받은 咨文을 재확인한 것으로 明制에 대하여 이등체강원칙을 따랐다⁶²⁾. 그러므로 관복에 착용한 靴는 明의 것과 거의 비슷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靴의 도식을 <그림 20>와 같이 시대순으로 정리해보면 그 모양의 변화를 알 수 있다. 靴 입구의 모양이 사선에서 원호로 바

뀌었고, 靴筒의 넓이는 넓어졌으며, 밑창의 모양도 지면과 수평을 이루었다. 그러나 1493년에 편찬된 『樂學軌範』에 보이는 靴의 재단법은 기본적으로 국말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靴筒이 길고 앞부분의 밑창을 위로 많이 올라오게 만들었으나, 말기에는 靴筒이 짧아지고 넓어졌으며 밑창을 지면과 수평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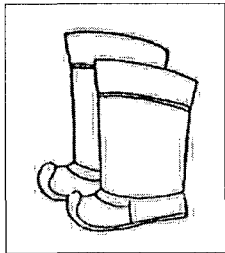
이 좀더 완만한 선을 이루었다. 明末의 王圻가 1607년에 自序를 쓴 후, 그의 아들 王思義가 續集을 편찬하여 완성된 『三才圖會』의 그림이 정확하다면 明의 靴는 모양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었고, 조선은 14세기 후반에 明으로부터 사여 받은 靴를 거의 그대로 간직해온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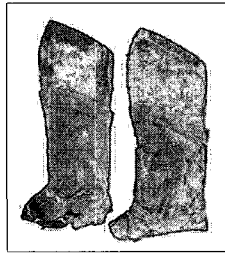
<그림 20> 靴 형태의 변천 과정

조선시대의 靴를 明代의 것과 비교해보면 관복을 입고 靴를 착용한 인물들의 초상화에서 靴의 앞부분이 매우 비슷하다. <그림 21>의 『樂學軌範』에 보이는 흑피화는 明나라 14대 황제인 萬曆帝(1573~1620)의 유물 중에 <그림 22>의 靴이 있는 靴와 모양이 거의 같다. 한편 明代의 왕기가 저술한 『三才圖會』에 나오는 官靴의 도식인 <그림 23>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형태와 밑창이 앞부분에서 들린 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재단선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靴筒의 모양은 『樂學軌範』의 것이 직선적인데 비하여 『三才圖會』의 것은 굴곡이 있다. 둘 다 靴의 입구는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은데 조선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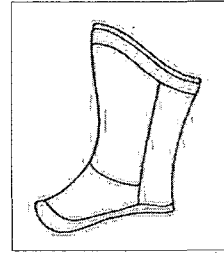
만면 동치민족이 한족에서 만주족으로 바뀐 清代의 靴는 그 모양도 만주족의 것으로 모두 바뀌게 되었다. <그림 24>에서처럼 清代의 官靴는 靴筒이 높고 소재가 주로 단이었으며 밑창이 두껍고 지면과 수평을 이루게 만들었다. 대신 靴의 끝은 밑창보다 조금씩 앞으로 나오게 디자인되었다. 이는 두꺼운 밑창의 신을 신었을 때 걷기 편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⁶³). 靴의 앞부분의 모양도 조선의 것은 원형인데 비해 방향에 가깝거나 뾰족했다. 한편 활동에 편리해 武人들이 착용했던 快靴는 靴筒이 짧고 밑창이 얇긴 했으나 그 형태는 조선후기의 것과 역시 다르다. 바닥이 얇은 것과 높이가 짧은 것



<그림 21> 『樂學軌範』의 흑피화 (한국삼재대회, 2002)



<그림 22> 萬曆帝의 靴 (중국복식명물고, 2001)



<그림 23> 明代 관화 (三才圖會)



〈그림 24〉方頭靴
(*Chinese Dress Accessories*, 1997)

을 제외하고는 관화와 같다. 靴 입구의 모양은 조선의 것은 圓弧를 이루는데 淸의 것은 앞이 뒤보다 높게 경사져 있다. 이러한 淸代的 靴 모양에서 조선의 靴와 비슷한 점은 밑창이 지면과 수평이라는 점이다. 19세기 말에 조선의 靴의 앞부분 밑창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淸代的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靴는 기본적으로 明制를 따랐으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입구의 기울기, 靴筒의 너비, 밑창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정도 등의 세부 디자인이 바뀌어 목화와 같은 독자적인 형태로 제작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고대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한반도에 정착했던 남방 농경민족이 신었던 履에 북방 유목민족이 유입되면서 靴도 함께 착용되었다.

고대의 신은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착용 모습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지기, 시녀들과 무용수들이 착용한 발목 정도 길이에 꼭 끼는 형태의 靴가 있다. 이는 정강이까지 오는 짧은 길이의 韃靼인 서호의 신과 비슷하였으며, 문헌에 나오는 무용수의 신인 烏皮鞋와 같다고 추정된다. 쌍영총 벽화에 그려진 帶가 있는 靴는 귀족층이 착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라에서도 착용한 신코가 낮고 같이 뽀족한 靴는 주로 기마 때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靴의 종류로는 黑麀子皮靴, 黑斜皮靴, 黑皮靴, 木靴, 挾金靴, 水靴子, 狍皮靴, 起子靴, 白靴

등이 있었으며, 靴 안에 착용하는 精이 있었다.

精은 靴를 신을 때 발의 편안함과 방한을 위한 屐衣의 한가지로 생각된다. 木靴는 19세기가 되어서야 문헌에 그 명칭이 나타난다. 당시 유물과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밑창이 지면과 수평이고, 신목이 짧아지고, 입구에 선을 두르는 등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靴의 통칭어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水靴子는 靴 앞부분이 피화보다 위로 더 들렸고 靴筒이 더 길다. 원래 戎服에 착용되었던 수화자는 걷기 편하게 하기 위해 앞부분을 위로 들리게 한 듯하다. 白靴는 國喪 때 喪服에 뿐만 아니라 관복 중에서 안감을 흰색으로 댄 時服, 그리고 평상시에도 착용했다.

조선시대의 靴의 형태 변천을 살펴보면, 고려 말 공민왕대에 明으로부터 관복을 사여받은 이후 기본적으로 明制를 따랐으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입구의 기울기가 경사진데서 등근 곡선을 이루었고, 靴筒의 너비는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졌으며, 밑창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점 등의 세부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어 제작되었다.

본 연구는 그 범위를 靴에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며, 明·淸의 영향을 알아보아 조선 靴의 독자적인 형태 변천과정을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목이 짧은 履와 여자용, 草製, 木製의 등의 다루지 않은 신에 대해서도 주변국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요청되며, 중국뿐 아니라 일본 등의 다른 주변국들의 영향관계 파악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김병모 (1981). 韓國 巨石文化 原流에 관한 研究. 韓國 考古學報, 10·11, pp. 74-77.
- 2) 杉本正年 著, 문광희 譯 (1997). 동양복장사논고, 고대편. 서울: 경춘사, pp. 310-312.
- 3) 說文 革部: 胡人履連脛 謂之絡鞮
- 4) 高春明 (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p. 777.
- 5) 위의 책, pp. 789-791.
- 6) 유희경, 김문자 (1999). 한국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pp. 5-7.
- 7) 박진옥 (1988). 조선 고고학 전서, 고대편.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pp. 57-58.
- 8) 三國史記 卷三十二 雜志一 樂
- 9) 三國史記 卷四十五列傳 溫達傳: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 10) 림영규 (1996). 원시시대의 집짐승 기르기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조선고고연구*, 1, p. 34.
 - 11) 손예철 편저 (2003). *東亞中韓辭典*. 서울: 두산동아, p. 2447.
 - 12) 中華古今注 卷上 韠者: 蓋古西胡服也 昔趙武靈王好胡服 常服也 其制短鞞黃皮 閑居之服 至馬 周改制長鞞 以殺之 加之以氈及條 得著入殿省數奏 便乘騎也 文武百僚咸服之 至貞觀三年 安西國 進緋韋短鞞韠 詔內侍省 分給諸司 至大曆二年 宮人錦鞞韠 侍于左右
 - 13) 박선희 (2002). *한국 고대 복식*. 서울: 지식산업사, pp. 525-531.
 - 14) 국립부여박물관 편 (1988). *中國洛陽文物名品展*. 서울: 동천문화사, p. 247.
 - 15) 金鍾完 (2001). 梁職貢圖의 성립 배경. *魏晉隋唐史研究*, 8, pp. 29-30.
 - 16) 三國史記 卷三十三 雜志二 色服
 - 17) 三國史記 卷三十二 雜志一 樂
 - 18) 이진민 (2001).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묘사된 三國使臣의 服飾 研究. *복식*, 51(3), pp. 157-159.
 - 19) 三國史記 卷四 新羅本紀四 法興王 八年: 八年 遣使於梁貢方物
 - 20) 권준희 (2001). 신라복식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4.
 - 21) 高春明 (2001). *앞의 책*, pp. 776-778.
 - 22) 李如星 (1947). *朝鮮服飾考*. 서울: 백양당, p. 95.
 - 23) 김민지 (2000). *발해 복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4.
 - 24) 都良香文集 券四: 渤海楊大使贈貂裘香暗摸靴狀 册府元龜 卷九百七十二 朝貢 五: 後唐 莊宗 同光 (중략) 三年二月 渤海國王大諱諤 遣使裴□ 貢人參松子昆布黃明細布貂鼠皮被一擗六髮靴革奴子二
 - 25) 新唐書 卷一百九十六 列傳 朱桃椎傳: 朱桃椎益州成都人 澹泊絕俗 被裘曳索 人莫能測 其爲長史寶軌見之 遣以衣服鹿幘麕韠 逼署鄉正委之地 不肯服
 - 26) 高麗史 志 券二十六 輿服一長吏公服
 - 27) 高麗史節要 卷二 成宗文懿大王元年 壬午
 - 28) 高麗史節要 卷二十五 忠惠王 五年 甲申
 - 29)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p. 21.
 - 30) 老朴集覽: 麕皮[大麕也麕鹿之大者譯語指南謂牝鹿曰麕 鹿質問云大曰麕小曰麕其皮可作靴]
 - 31) 六典條例 尙衣院 進上.
 - 32) 이정섭 역 (1999). *國譯嘉禮都監儀軌*.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p. 179.
사피는 獐皮, 貂皮라고도 하는데 담비의 毛皮.
 - 33) 丁若鏞 原著, 金鍾權 譯註 (1976). *雅言覺非* 卷2, 서울: 일지사, pp. 150-151. 斜皮誤謂黍皮[華音本서씨今鞋工鞞工誤稱青黍皮白黍皮]
 - 34) 萬機要覽 財用編一 供上 大殿.
 - 35) 김지남, 김경덕 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1998). *通文館志*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284.
 - 36) 孫敬子, 金英淑 편 (1982). *韓國服飾史 資料選集: 朝鮮篇Ⅲ*. 서울: 敎文社, p. 83.
당피(唐皮)는 당나귀 가죽.
 - 37) 尙方定例 天 進折式: 黑熊皮結花溫鞋 每部表黑熊皮內供白唐皮 (중략) 黑熊皮結花溫鞋每部表黑熊皮內供白唐皮
 - 38) 中宗實錄 23年 2月 3日.
 - 39) 成宗實錄 10年 10月 12日.
 - 40) 박성훈 (2002). *한국삼재도회*. 서울: 시공사, p. 1316.
 - 41) 周迅, 高春明 (1998). *中國傳統服飾刑制史*.臺北: 南天書局, p. 143.
 - 42) 駱崇騎 (1990). *中國鞋文化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33-34.
 - 43) 林下筆記 春明逸事 靴子變通: 靴子製規 以皮物爲之後來則內粧以氈 外西青綿縐 榜樣於靴丁之見外也 崇品飾用錦緞 尊之也 近頒新制 太祖所御製樣 而類於水靴子
 - 44) 유희경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317.
 - 45) 樂學軌範 九: 靴 以黑皮爲之
 - 46) 寒洲全書 三 四祀鞞要 總目: 複底如鞋 或用木片,承之上裹半脛
 - 47) 純宗實錄 1922年 4月13日.
 - 48) 練藜室記述: 都承旨鄭亨益奏 武臣之服黑天翼着水靴子爲其便於射而利於步也 孝宗朝曾有申飭而漸至解弛 皆着直領及白靴 請申禁 從之
 - 49) 聞見雜記 上: 下皆着水靴子 而其口長而且狹 脫着甚難 蓋取其便於行步 靴底摺布爲之極厚且堅雖行泥路 亦不滲濕
 - 50) 太宗實錄 8年 5月 25日.
 - 51) 世宗實錄 28年 3月 27日.
 - 52) 燕山君日記 11年 9月 13日.
 - 53) 正祖實錄 2年 5月 4日.
 - 54) 민족문화추진회 역 (1981). *正祖實錄* 17年 10月 20日.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82-83.
 - 55) 林下筆記 春明逸事 靴子變通: 古黑圓領着黑靴 時服用白靴 正廟朝並用黑靴 因時服內拱之以白爲青故也
 - 56)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제도 변천. *복식*, 55(6), pp. 41-48.
 - 57) 老朴集覽: 狍皮[質問云羊皮去毛熟軟有鬚眼作靴好看今按狍字韻書不收字義詳]
 - 58) 서정원 (2002).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본 14~18세기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8.
 - 59) 정동찬 외 (1999). *겨레과학기술 조사연구(Ⅳ)*.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사연구실, p. 141.
 - 60) 유희경 (1975). *앞의 책*, p. 328.
 - 61) 유희경, 김문자 (1999). *앞의 책*, pp. 188-201.
 - 62) 위의 책, pp. 181-182.
 - 63) Valery M. G. (1997). *Chinese dress accessories*. Singapore: Times Edition, p. 130.